

13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5808.62 (-50.25)	1099.84 (+6.21)
금리 (연이자율)	환율 (원/달러)
3.382 (+0.022)	1487.85 (+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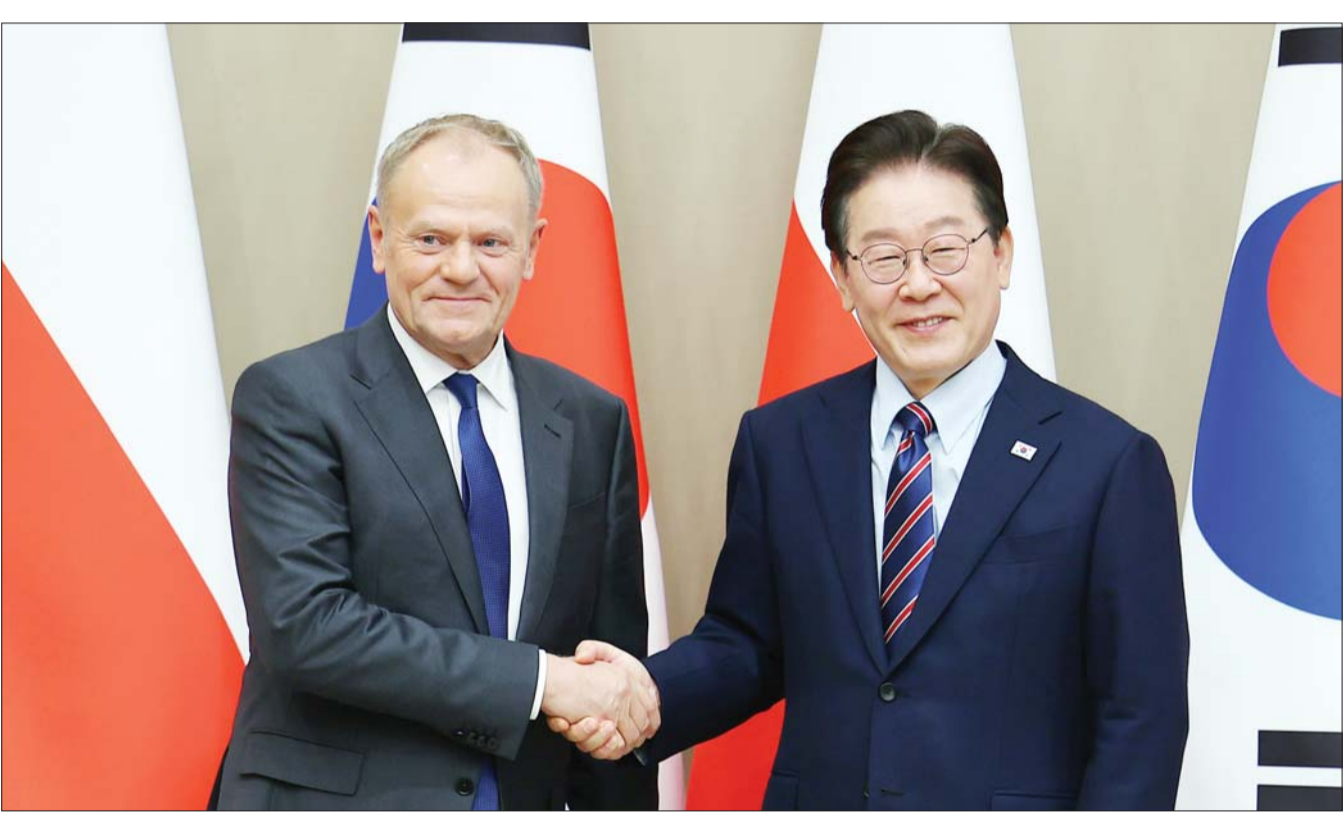


## 기업들, 돈 줄 말랐다... '빚 돌려막기' 연명

4월 회사채 순발행액 -4547억  
상환액이 발행액 보다 많다는 것  
'빚 갚는 날' 상반기에 대거 몰려  
저신용 기업, 신용 리스크 확대  
회사채 '옥석 가리기' 예고

#. SK네트웍스는 지난 10일 회사채 (1500억원) 발행을 앞두고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830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SK네트웍스는 조달 자금을 채무 상환에 쓸 예정이다. 이달에만 36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면서 차환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한일시멘트도 기존 공모채와 은행 차입금 상환을 위해 97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기업이 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금투협)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4월 들어 현재까지 회사채순발행액은 -454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환액(3조3776억원)이 발행액(2조9229억원)보다 많았다는 얘기다. 회사채(Corporate bond)는 주식회사가 빚을 갚거나, 신규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자(금리)를 붙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관련기사 3면>  
회사채 발행은 상반기에 더 늘 전망이다. 전체 회사채(118조8000억원)만기 시점은 주로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 상반기 회사채 만기 규모는 72조7000억원이다. 하반기 물량(46조1000억원)보다 30조원 가까이 많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AA- 미만 기업의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액은 21조원이다. 하반기 10조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스

3000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시장에서 돈을 빌리기 더 어려운 기업들의 '빚 갚는 날'이 올해 상반기에 대거 몰려 있다는 뜻이다.

현재 SK, 한화호텔앤드리조트, CJ푸드시웨이, 호텔신라, 이랜드월드, 금호타이어, 포스코인터내셔널, HD현대, 롯데칠성음료, AJ네트웍스, 풍산, 한온시스템, 삼양식품 등이 회사채 발행에 나섰거나 예고한 상태다.

<2면에 계속>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중전 결렬... 석화수급 난항 국내 산업계, '생사의 기로'

정유·석화업계, 최악엔 '가동중단'  
항공업계, 환율 급등에 '비상경영'

미국이 이란과의 중전 협상이 결렬되자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맞서 '역 봉쇄'에 나서 국내 산업계의 위기감이 급팽창하고 있다. 휴전 국면이지만 원유와 석유화학 원료 등의 공급 봉쇄는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군이 이란의 모든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에 실제로 들어가면 호르무즈해협의 긴장감은 극단적으로 고조되고 사태는 예상 못할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유와 석화업계는 중동산 원유와 나프타 재고분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연쇄 가동 중단 사태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부가 확보한 미국산 원유 등이 국내에 도착하면 나프타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이번 이란 해상 봉쇄로 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유업계의 경우 중동산 원유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큼 우회 경로를 확보해도 전체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석화업계 역시 단기 대응으로 상황을 버티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에는 속

수무책이라는 반응이다.

항공업계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초비상사태를 맞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항공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대한항공과 저비용 항공사들이 일제히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과거 항공업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사태와 맞먹는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해상 봉쇄로 항공유 가격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항공유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두 자릿수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티웨이항공의 경우 중동발 사태 장기화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티웨이항공이 승무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건 2024년 8월 시행한 이후 2년 만이다.

해운업계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달 넘게 고립된 우리 국적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73명의 안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과 이란의 중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남아 있는 2주간 휴전 기간에도 모든 선박이 해협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4면에 계속>

## "美, 첨단 제조능력 확보 전략거점 구축"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내후년 생산공정에 '아틀라스' 투입



는 로봇과 AI가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2030년에는 연간 최대 3만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이 미국을 그룹의 핵심 전략 시장임을 강조하며 현지 투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미국을 단순 제품 생산·판매 시장이 아닌 생산과 고용, 첨단 제조 능력을 확보하는 전략 거점으로 구축하고 미래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다져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로보틱스와 수소, 인공지능(AI)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세마포와의 인터뷰에서 "로보틱스와 AI는 단순 모빌리티를 넘어 진화하는 데 핵심 요소"라며 "인간과 협업하



▲李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61.9%·'잘못한다' 32.8%  
▲국힘, '한동훈 출마설' 부산북갑 무공천 주장에 "있을 수 없는 일" /사진 뉴스

▲與 "내달 초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 실시...선관위 구성 예정"  
▲北, 벨라루스 대사 파견에...통일부 "삼각협력 강화 기조"

▲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노동현장 혼란 심각...재개정해야"  
▲김 총리, 안도 화재 순직 소방관에 옥조근정훈장 추서

### 社告

####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부문
  -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 ① 전형방법
    - ▲ 1차: 서류전형
    -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 및 평가)
    -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00명
  - ③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① 회사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구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4월 30일(목)
  - ② 접수방법: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4월 30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옥인동, 메트로빌딩)
  -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년 5월 8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취재역량 평가시험
  - ① 일시: 2026년 5월 13일(수) 10시 ~ 16시 40분
  - ② 장소: 추후 통지
  - ③ 내용: 공지하는 주제로 취재 기사를 작성하여 제출
  - 1차 실무면접
    - ①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② 일자: 2026년 5월 14일(목)~15일(금) 중 1일
    - ③ 장소: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2차 최종면접
      - ① 대상: 취재역량평가시험 및 1차 실무면접 합격자 <2면에 계속>

